최근 아세안-5 경기 동향과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명구 연구위원(mgk101@kdb.co.kr)

Ⅰ. 코로나19와 아세안-5 경제
Ⅱ. 위드 코로나와 아세안-5의 대내외건정성
Ⅲ.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아세안-5는 ‘20.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봉쇄, 이동 제한, 내수 및 수출 감소, 실업률 증가, 산업생산 둔화, 자본 유출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5 국가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아세안-5 각국은 침체되는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과 정부지출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민간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확대, 조세 혜택, 공공서비스 확대 등의 소비진작책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대출 연장, 운영자금 지원, 조세감면 등을 부여하였다.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 이후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아세안-5 경제는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었다. 대내건정성은 경기부양책 시행 과정에서 정부부채 증가, 조세수입 감소, 소비자물가·기준금리·환율 상승 등으로 IMF 기준을 벗어난 취약한 구조이지만, ‘21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대외건건성은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가 회복되고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여 호전되었다. 결론적으로, 대내외건건성 지표를 살펴볼 때, 아세안-5는 경제 펜더멘탈이 개선되어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나,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5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5는 우리 정부의 인도 · 태평양전략 중심지로서, 동 정책의 연계 선상에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5의 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첫째,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對아세안-5 진출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둘째, 양자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협력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의 아세안-5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별로 설립한 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Ⅰ. 코로나19와 아세안-5 경제

1. 코로나19와 경제성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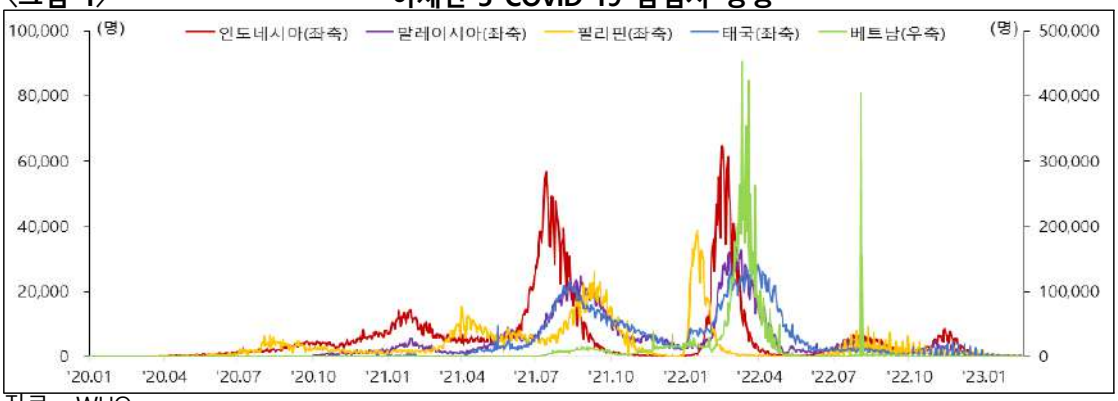
❑ 아세안-5는 '20.1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진자 급증

○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아세안-5 각국은 국경봉쇄, 거주 이동 규제, 격리 조치 등 강력한 방역조치 실시 등에도 확진자가 '21.3분기까지 급격히 증가

- 각국은 백신접종 확대,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강력 대응

○ '22년초 코로나19 변이종이 유행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2월부터 다시 급증하였으나, 상반기 이후 진정상태로 전환되어 위드코로나 시행 중

〈그림 1〉 **아세안-5 COVID-19 감염자 동향**



자료 :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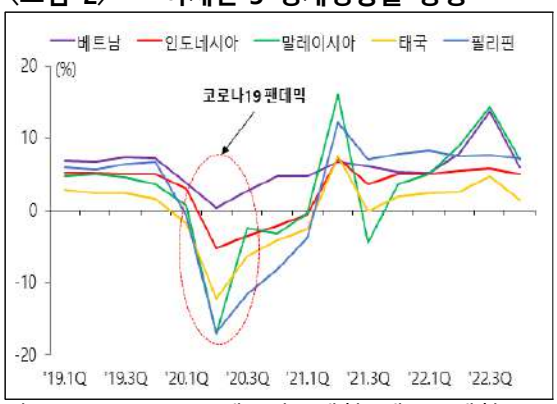
❑ '20년 아세안-5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국경봉쇄, 이동 제한, 내수 및 수출 감소, 실업률 증가, 산업생산이 둔화되며 역성장

○ (GDP성장률) '20년 아세안-5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내수 및 외국인투자 감소, 관광업* 침체, 인프라 사업 지연 등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역성장

* 세계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GDP 대비 여행 및 관광업 비중은 '19년 기준 필리핀 22.5%, 태국 20.3%, 말레이시아 11.7%, 인도네시아 5.6%, 베트남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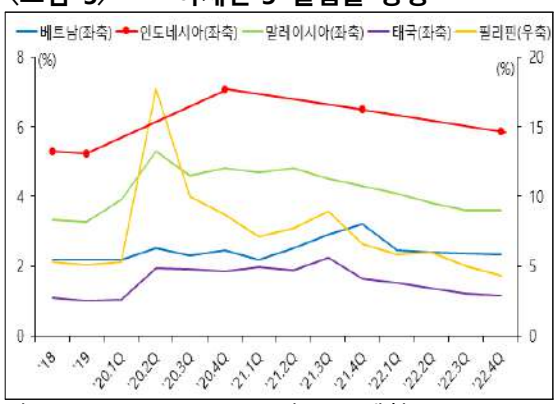
- (베트남) 외국인투자 감소, 관광업 침체, 내수 위축 등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아세안-5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 (인도네시아) 내수와 투자가 감소하고, 인프라 사업 보류 등에 따른 건설업 위축, 관광수입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받아 △2.1% 성장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기준금리를 총 6회 인하하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 (말레이시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식료품 · 의약품 등 필수품 구입을 제외하고는 외출 전면 금지로 산업생산 및 민간소비 위축, 투자 감소로 △5.5% 성장
- (태국)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2020.3.25일부터 국경봉쇄, 지역간 이동금지 등 국가비상사태[1] 선포, 관광객 입국 중단, 산업생산과 소비 감소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 위축으로 △6.2% 성장
- (필리핀) 국경봉쇄, 국내 이동제한조치 시행에 따른 서비스산업 위축, 수출 감소에 따른 높은 실업률이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져 아세안-5 중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9.5%)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4%인 '20년 서비스산업의 생산이 전년 대비 7.2% 감소, 75.1%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5.7% 감소[2]

〈그림 2〉 아세안-5 경제성장률 동향



자료 : Bloomberg; 베트남통계청; 태국통계청

〈그림 3〉 아세안-5 실업률 동향



자료 : Bloomberg; IMF; 각국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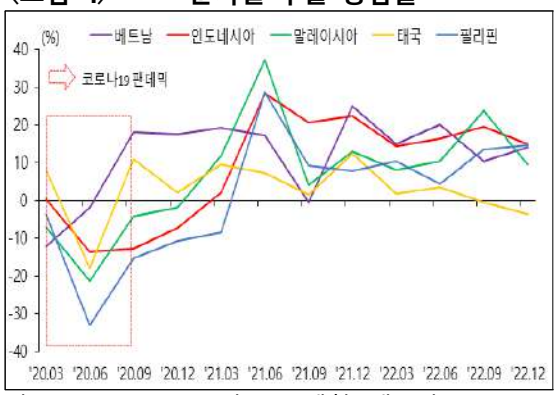
1) 태국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2020년 4월 30일까지로 발표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심화로 4차례 연장하여 동년 7월말까지 실시함

2)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2021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October 2021, p. 3-1, p. 3-3.

○ **(수출)** ’20년 수출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하락과 주요 수입국의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물류비 상승, 공급망 차질로 인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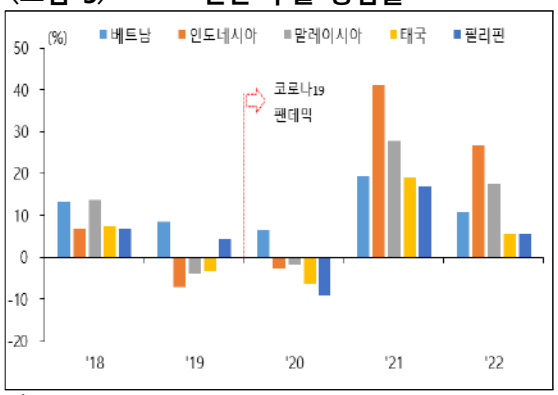
- (베트남)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급증하여 의류, 신발 등 소비재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증가세 시현
  · ’20년 수출은 전자제품과 부품(수출 2위) 24%, 기계공구와 부품(수출 4위) 48.6%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6.4% 증가
- (인도네시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가격 하락 영향으로 주요 수출품인 석탄 수출이 감소하여 총수출은 전년 대비 △2.6% 기록
  · ‘20년 주요 품목 수출 증감률(수출액 순위) : 석탄 △23.1%(2위), 원유 · 가스 △33.7%(3위), 팜오일 17.9%(1위), 철강 46.8%(4위) 등
- (말레이시아) 정부의 3.18일부터 코로나-19 대응책인 이동제한명령(MCO 1.0, Movement Control Order)으로 인해 3개월간 생산 시설가동이 중단되어 수출은 △1.7% 기록
  · 약 3개월간 식료품, 의약품 등 필수품 구입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전면 금지
- (태국)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산업생산 둔화, 가뭄으로 인한 주요 수출품인 쌀 수확량 감소로 ’20년 수출은 전년 대비 △6.5% 기록
  · 태국은 인도에 이어 세계 쌀 수출액의 19.2%를 차지하는 2위(’19년) 국가
-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역 대책인 지역간 이동 제한에 따른 산업생산 위축, 글로벌 경기둔화로 주요 수출품인 전기기기, 기계, 과일류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감하여 수출증감률은 아세안-5 중 가장 낮은 전년 대비 △9.2% 기록

〈그림 4〉 분기별 수출 증감률



자료 : Bloomberg; 각국 통계청, 태국상무부

〈그림 5〉 연간 수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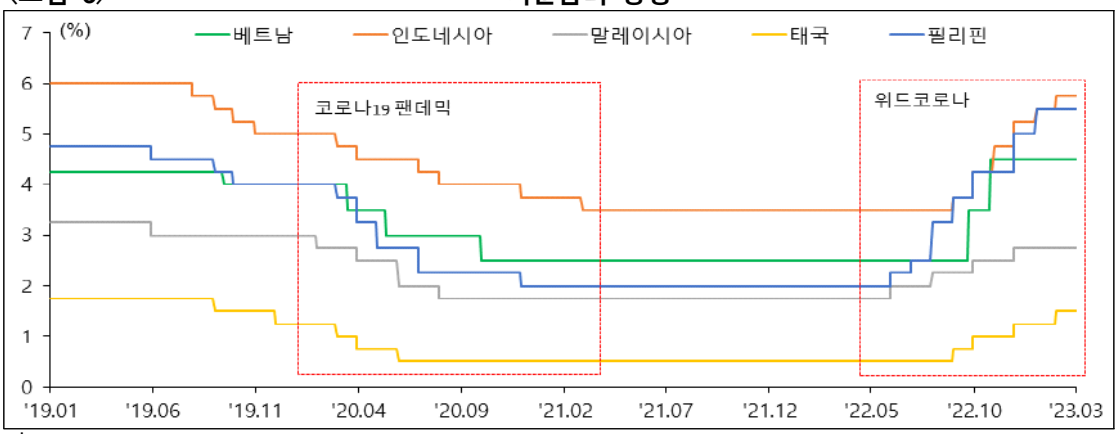


자료 : Trademap

○ **(통화정책)** ‘20년 아세안-5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

- (베트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3월 4%인 기준금리를 2.5%까지 인하
  ·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베트남 정부는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20.12월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으며, ‘21.4월 해제
- (기타 국가)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특히, 태국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0.5%까지 금리 인하

〈그림 6〉 **기준금리 동향**



자료 : Bloomberg; BIS

❑ **‘20년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산 및 소비 활동 위축, 자본 유출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확대**

○ **(환율)** 아세안-5는 ‘20년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부문의 위축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자본 유출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 환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급등하였으나, 3월말 이후 고점을 지나 소폭 안정화 추세
  · 연초 대비 3월말 환율 변동율(%) : 인도네시아 17.6, 태국 8.5, 말레이시아 5.6, 베트남 2.0, 필리핀 0.1
- 미국의 통화긴축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아시안-5 전반에서 통화가치 급락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나자 일각에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연 우려가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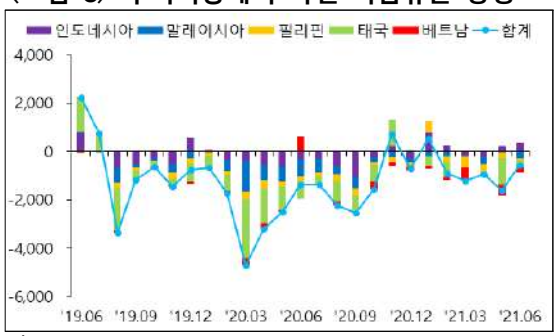
○ **(주식)** 아세안-5 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유출은 '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유출이 확대되어 주가 급락(〈그림 8〉 참조)

- 주가 변동률('20년초 대비 3월말, %) : 필리핀 △30.5, 태국 △28.7, 인도네시아 △27.9, 말레이시아 △23.8, 베트남 △9.6(〈그림 10〉 참조)

〈그림 7〉 아세안-5 국별 환율 동향

자료 : Bloomberg

〈그림 8〉 주식시장에서 국별 자금유출 동향



자료 : IIF

2.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아세안-5 경기부양정책

❑ 베트남은 투 트랙(Two-Track) 방역조치와 경기부양책 실시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3.22일부터 모든 해외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하고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실시했으나, 한국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허용

- 베트남 정부는 '20.1월 중국을 시작으로, '20.3.22일부터 모든 해외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하고 전국적인 봉쇄조치 실시
  · '20.1월 중국과의 육상국경을 폐쇄하였으며 이후 항공, 해상을 포함하여 중국과의 모든 교통수단을 일시 중단하고 중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중단, 중국으로부터 입국시 14일간 격리조치 등 강력한 방역조치 실시
-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허용하는 Two-Track 방역조치 시행
  · 베트남 정부는 주요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삼성, LG의 기술 인력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

* '20.3월 삼성디스플레이 180명, 5월 삼성디스플에이·삼성SDI 233명, LG 500여명 등을 예외적 입국을 허용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기업 및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억 달러 규모의 기업지원책, 실직자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20.3.4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표

-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부채 상환 연기, 금리 인하 · 면제, 수수료 축소,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 축소, 공공투자 지출 및 집행 가속화, 실직자 재교육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20년 478억 달러 등 대규모 부양정책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년 4회에 걸쳐 478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으며, '22년까지 국가재정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

- 주요 지원분야는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및 영세기업 지원, 빈곤 가정 보조금 대상 확대와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실시 및 저소득층 전기료 인하 등 사회보장, 코로나 검사키트 및 인공호흡기 조달 등 보건 분야 등에 6개 분야에 집중 지원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부양책 추진을 위한 자금을 '팬데믹 채권(약 310억달러)'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

〈표 1〉 '20년 경기부양책 세부 내역

지원분야	주요 내용
보건・의료	- 66.9억달러, 의료물품 구매 등, 백신 확보 관련 비용, 건강보험 수수료 지원, 의료진 앞 인센티브
사회보장	- 161.1억달러, 저소득층 현금지원, 취약계층 식량 공급, 구직활동 지원, 전력보조금 지원
정부부처·지방정부 등	- 45.4억달러, 지방은행 유동성 공급, 노동집약산업 지원, 관광산업 지원
중소・영세기업	- 78.9억달러, 중소기업 앞 유동성 공급, 영세기업인 보조금 지원, 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
우선산업 지원	- 82.9억달러, 공기업 앞 자금 지원, 국부펀드 조성금
세제 인센티브 제공	- 82.9억달러, 소득세 감면, 법인세율 인하분 부담, 수입관세 면세, 부가가치세 환급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Economic Report on Indonesia 2020', March 2021

❑ 말레이시아는 경기부양을 위해 '21년 상반기까지 6차례 부양정책과 '단기경제회복계획'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자 '20년초 2회에 걸쳐 705.9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경기부양 지원금 중 정부 재정지출 107.7억달러(15%),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이 598.2억달러(85%) 지원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기업 및 가계 대출 상환유예 조치에 239.3억달러,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제공에 119.6억달러 등 지원

❍ '20.6.5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이동 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연착륙하기 위해 82억달러 규모의 '단기경제회복계획(short-term economic recovery plan)' 발표

- 계획안에는 초기 기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투자 펀드와 매칭시키는 투자기금 조성, 말레이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최대 15년간의 세금 면제 등이 포함

❍ '21년 들어 코로나19 확산 심화, 봉쇄 조치가 강화로 경기침체 악화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상반기 중 4차례에 걸쳐 549.2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노인층 등 취약계층 앞 현금 지급, 가계 전기요금 할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현금흐름 지원, 은행 대출만기 자동 연장(6개월) 등 봉쇄 조치에 따른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

❑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조치*로 민간소비 및 기업활동 위축 등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 시행

* '20.3.25일부터 국가비상사태 선포, 입국 금지, 일부 지역 봉쇄, 야간 통행금지 등 시행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1단계 130억달러, 2단계 62.5억달러 등 총 162.5억달러의 경기부양책 시행

- 태국 정부는 민간에게는 사회보장한도, 현금지급, 조세혜택 등을 통한 소비진작책을, 기업에게는 금리인하, 대출연장, 특별대출, 조세혜택 등을 부여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확대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추진

〈표 2〉 **'20년 태국 코로나19 대응 양책 세부 내용**

지원분야		주요 내용
1차	일반국민 (근로자)	- 전기 및 수도 요금 인하, 전기미터 계량기 보증금 반환 - 의료진 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 - 근로자 사회보장보험 부담 요율 인하 -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 보장 한도를 6,400달러에서 2배 인상 - 정부 및 공기업 분야의 수수료 등 비용 인하
	사업주	- 기업들을 위해 최대 2년간 약 50억 달러 규모의 연이자율 2%의 소프트론 제공 - 정부저축은행, 농업협동은행 등 특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자에 한함)의 원금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대출연장 제공 - 사회보장보험(SSO) 가입 업체들의 고용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3년간 연 3% 의 저금리 대출 지원(9.6억달러 규모) - 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6개월간(4월~9월) 원천징수 세율을 3%→1.5%로 인하 - 수출기업 부가세 환급 : 인터넷 제출 15일 이내, 일반 제출 45일 이내 소요 - 소프트론 프로그램에 속한 중소업체들을 위해 '20년말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해 1.5배 세액공제 -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업체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인건비의 3배 세액공제 - 전기.수도세 인하 및 전기미터 계량기 보증금 반환 -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 : 중앙 예산국 구매.채용 요건 완화, 진행기간 축소 - 사업주 사회보장보험 부담 요율 인하 - 정부 및 공기업 분야의 수수료 등 비용 인하
2차	일반국민 (근로자)	- 현금지급 : ①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00만 명의 계약직.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에 4월부터 3개월간 매월 약 150달러 지급, ①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된 실직 근로자에 대해 최대 180일 기간 동안 평소 급여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 특별 저금리 대출 : 사회보장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해 ①1인당 최대 약 313달러를 최대 2년 6개월 기간 동안 월 0.1% 금리로 무담보 대출(약 12.5억 달러 규모) ②월 0.35% 금리로 최대 3년간 약 1,563달러까지 추가 대출 (총 6.25억 달러 규모) - 조세혜택 : ①개인 소득세 납부 기한을 3월에서 8월 말로 연장, ②민간 의료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480→640달러 확대, ③의료진 위험수당 비과세
	사업주	- 특별신용대출 : 1인당 최대 약 9.5만달러를 2년간 연 2% 금리로 대출 - 조세혜택 : ①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8, 9월), ②유흥.서비스 업종의 소비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7.15일), ③부가가치세 및 특별 사업세 납부 기한 1개월 연장, ④코로나19 대처 관련 물품의 수입관세 면제 - 관광업계 저금리 대출 : 정부저축은행을 통한 약 31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

자료 : 주태국 한국대사관

❑ 필리핀은 「Bayanihan to Heal As One Act」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 및 경기회복 부문에 우선 지원

❍ 필리핀 정부는 정부예산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회복에 지원

- 세계은행(WB)으로부터 1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300만달러의 재원 확보

❍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20.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 발표

- 정부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테스트 킷 조달, 저소득가구, 민간산업 분야, 관광업 등 코로나19 대응 분야와 주요 산업에 우선 지원

〈표 3〉 **필리핀 경기부양책 세부 내역**

(단위 : 백만달러)

지원분야	지원액
COVID19 테스트 킷 조달(아시아개발은행 지원금 포함)	59
노동취약층 및 실직자 지원(고용노동부)	63
기술교육·기술개발청(TESDA)의 단기 실직자를 위한 기술훈련 등	59
관광산업	275
농업부문 생존·회복 프로그램	55
소규모 특별 융자대출	20
COVID19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가구 지원	3,933
민간산업분야 피해 대응	533

자료 :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 이외에, 필리핀 정부는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 개발사업을 확장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의 연착륙 추진

- 'Build, Build, Build'는 두테르테 정부가 출범한 직후 미래 필리핀 산업의 원동력과 초석이 될 인프라 확장 사업으로 교통, 홍수관리, 수자원, 에너지, 통신, 하수도 등 총 4,800여 개의 프로젝트 실행 계획

Ⅱ. 위드 코로나와 아세안-5 경제

❑ **아세안-5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물가상승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불안감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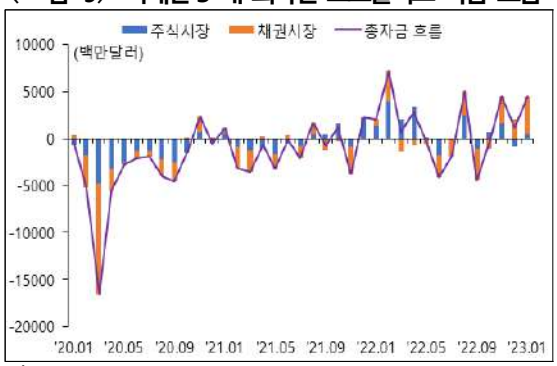
❍ 아세안-5 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이 코로나19 팬데믹과 '22.2월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나, '22.11월부터 순유입으로 전환

- 아세안-5 자금 순유출입(억달러) : △44.1('22.09월)→△3.6(10월)→45.3(11월)→11.8(12월)→44.6('23.1월)

❍ 주가는 코로나19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주식시장 자금 유출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22.4Q부터 회복 추세

- 베트남은 대외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 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이 주가 상승을 지지
  · '20년 수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인 150.6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시현
- 반면, 필리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가장 심각한 주가 하락을 보임(〈그림 5〉 참조)
  · 필리핀은 코로나19 이후 '20년초 대비 최고 △38.9%,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2년초 대비 최고 △28.1% 급락

〈그림 9〉 아세안-5 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흐름



자료 : IIF

〈그림 10〉 아세안-5 주가 동향

자료 : Bloomberg; 각국 통계청

❑ '22년 아세안-5의 대내건전성은 견조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호전되었으나, 국별 경제구조에 따라 차별화

○ **(경제성장률)** '22년 아세안-5는 코로너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5.2% 성장

- 아세안-5는 코고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투자 및 민간소비 확대, 서비스업 회복, 수출 증가, 주요 수출품인 니켈, 석탄 등의 가격 급등 등으로 태국을 제외한 4국은 아세안 평균을 상회
  · 태국은 민간소비, 관광업 등은 개선되었으나, 소비자물가가 5~8월 4개월 연속 7%대를 상회하며 경기회복을 제한하여 아세안-5 중 가장 낮은 2.8% 성장

○ **(소비자물가)** 경기부양과 더불어 소비회복에 따른 물가 억제에 중점을 둔 통화 긴축 정책 추진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제외한 3국은 IMF 기준인 5%를 상회[3)]

- 소비자물가 동향('22년초 대비 년말, %) : 필리핀 3.0→8.1, 태국 3.2→5.9, 인도네시아 2.2→5.5, 말레이시아 2.3→3.8, 베트남 1.9→4.5
-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에 아세안-5 각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화 추진
  · 아세안-5 기준금리('22년초 대비 년말, %(상향조정 횟수)) : 필리핀 2→5.5(7), 인도네시아 3.5→5.5(5), 베트남 2.5→4.5(2), 말레이시아 1.75→2.75(4), 태국 0.5→1.25(3) (〈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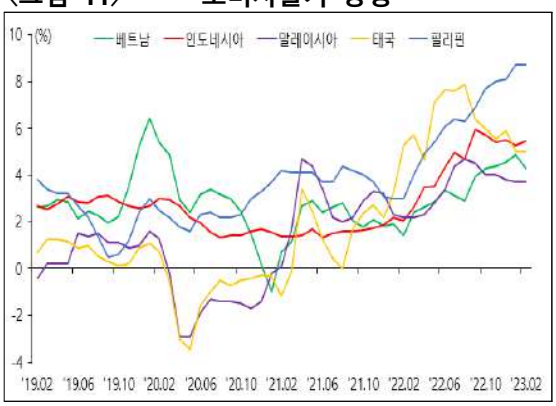
〈표 4〉 연간 경제성장률

(단위 : %)

	2021	2022	2023
아세안-5[1)]	3.8	5.2	4.3
인도네시아	3.7	5.3	5.0
말레이시아	3.1	5.4	4.4
필리핀	5.7	6.5	5.0
태국	1.5	2.8	3.7
베트남	2.6	7.0	6.2

주 : 1)은 2023.1.30.일 IMF 발표 자료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22

〈그림 11〉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 : Bloomberg; 베트남통계청; 태국통계청

3) IMF「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1999)에서 제시한 거시경제부문 위기판단지표 기준치를 참조

○ **(정부재정)** ’22년 아세안-5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채 증가, 조세수입 감소, 소비자물가·기준금리·환율 상승 등으로 일부 국가의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IMF 기준을 소폭 벗어난 수준

- (정부부채) 아세안-5 중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IMF가 제시하는 재정취약성 기준인 정부부채/GDP 비중 50%를 초과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크지 않은 편
- (재정수지) IMF는 재정수지/GDP가 △2% 이하인 국가를 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하는데, ‘22년 아세안-5는 동 기준을 상회한 취약국이지만, ’21년보다는 개선
  · 아세안-5는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른 소비위축 및 기업수익 감소, 조세감면 등으로 세입이 줄고,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표 5〉 **아세안-5 대내건정성 지표(‘22년말 기준)**

(단위 :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정부부채/GDP			재정수지/GDP		
			‘20	‘21	‘22	‘20	‘21	‘22
기준	**5.2**[2]	**5.0**[1]	**50.0**[1]			**△2**[1]		
베트남	6.2	4.6	49.9	39.1	40.1	△2.9	△3.5	△4.7
인도네시아	4.8	5.5	39.8	41.2	40.9	△6.1	△4.6	△3.7
말레이시아	4.4	3.8	67.7	69.0	69.6	△4.6	△5.5	△4.9
태국	3.7	5.8	49.5	58.4	61.4	△4.7	△7.0	△5.6
필리핀	5.0	8.1	51.6	57.0	59.3	△5.7	△6.5	△5.3

주 : 1) IMF「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1999)에서 제시한 거시경제부문 위기판단지표 기준치를 참조
2) IMF ’22.10월 발표한 전망 기준

자료 : Bloomberg; IMF(Fiscal Monitor, 2022.10); IIF; CEIC

❑ ‘22년 대외건전성은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대외지급 능력 개선 등으로 양호한 수준

○ **(경상수지)** ’22년 아세안-5는 글로벌 수요 증가, 무역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가 회복되어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4개국은 IMF가 제시한 대외건전성 취약 기준인 경상수지/GDP △5%에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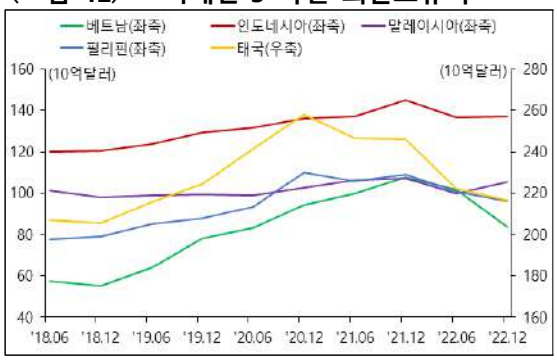
- 필리핀은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관광업이 GDP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태국은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GDP가 마이너스
  · 필리핀 상품수지(각년 1~2Q, 억달러) : △224.2(‘19)→△157.2(20)→△233.1(‘21)→△348.7(‘22)
  · 태국 서비스수지(각년 1~2Q, 억달러) : 94.1(‘19)→△24.6(20)→△156.4(‘21)→△150.0(‘22)

○ **(외채)** 아세안-5의 외환보유액은 코로나19 이후 자금유출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유입 등으로 인해 외채상환에는 양호한 수준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말레이시아(120.9%)를 제외한 아세안-5의 단기외채/외환보유액이 IMF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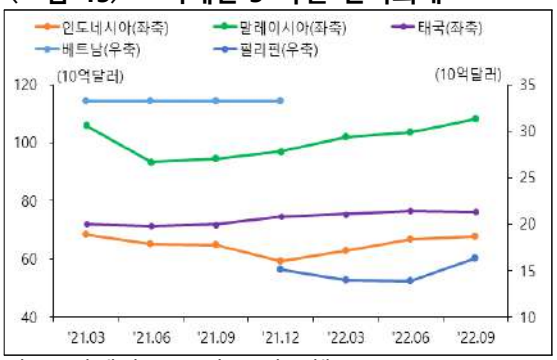
  *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외채무

〈그림 12〉 아세안-5 국별 외환보유액



자료 : Bloomberg

〈그림 13〉 아세안-5 국별 단기외채



자료 :아세안-5 국별 중앙은행

- (환율) BIS는 최근 3개월간 달러 대비 통화절상률이 △8% 이하일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아세안-5는 양호('23.2월말 기준)
  · '23.2월말 기준, 통화절상률은 베트남 △3.8%, 인도네시아 △3.1%, 필리핀 △2.3%, 말레이시아 0.9%, 태국 0.3%

〈표 6〉 아세안-5 대외건정성 지표('22년말 기준)

(단위 : %)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GDP	단기외채/외환보유액[4]	통화절상률
기준	**△5**[1]	**24.0**[3]	**100**[1]	**△8.0**[2]
베트남	0.3	20.7	30.9	△3.8
인도네시아	2.2	10.6	46.7	△3.1
말레이시아	1.6	26.4	120.9	0.9
태국	△0.5	40.5	31.1	0.3
필리핀	△5.5	23.9	17.6	△2.3

주 : 1) IMF「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1999)에서 제시한 거시경제부문 위기판단지표 기준치를 참조
2) BIS「Measuring Potential Vulnerabiliti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Working Paper 91)」(2000)의 환율변동 취약성 기준치를 참조
3) 외환보유액/GDP는 아세안 5개국의 총 외환보유액을 총 GDP로 나눈 값
4) 베트남 단기외채/외환보유액은 2021년말, 나머지 4개국은 2022년 9월말 자료

자료 : Bloomberg; IMF; IIF

❑ ‘23년 아세안-5는 견조한 경제성장과 대내외건전성 안정화에 따른 경제 펜더멘탈이 개선되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은 수준

❍ ‘23년 아세안-5 경제는 위드코로나와 더불어, 국내소비 및 관광업 회복,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어 해외로부터 자금 유입 확대,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견조한 성장 기대되나,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등이 성장을 제한할 전망

* 아세안-5 경상수지/GDP(%) : △0.27(‘21)→0.52(‘22)→0.82(‘23)

- (베트남) 외국인투자 확대, 국유기업 개혁 지속, 노동집약적 제조업 생산 증가, 수출 호조 등으로 아세안-5 중 가장 높은 6.2% 전망
- (인도네시아) GDP의 약 50%를 차지하는 내수 회복과 주요 수출품인 석탄, 니켈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로 ’23년 5.0% 성장 전망
- (말레이시아) 투자 및 민간소비 개선, 관광업 회복, 수출의 15.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회복[4]에 힘입어 총수출 약 35%를 차지하는 가전 및 전자제품의 수출 증대로 4.4% 성장 전망

* 중국의 원자재 수요 비중(%, ’15년 기준) : 알루미늄 54, 니켈 50, 구리, 48, 철강 45, 쌀 30, 밀 17, 원유 12 등

- (태국)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위드코로나로 인한 관광 등 서비스업과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3.7% 성장 전망
- (필리핀) 외국인 투자 촉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업 회복으로 5% 성장 전망

❍ 아세안-5는 대내외건전성 호전에 따라 경제위기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나, ‘23년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

-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하향 추세* 지속, ’23년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수출감소 등으로 對미 교역량 감소 및 무역수지 악화 우려 상존

* 미국 ISM 제조업지수 : 58.6(‘22.2)→52.8(‘22.7)→48.4(‘22.12)→47.4(‘23.1)

4) IMF의 2023.1월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2022년 10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보다, 0.4% 상향 조정한 5.3% 전망

〈표 7〉 아세안-5 對미·중 수출 비중('21년말 기준)

(단위 :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아세안-5
미국	28.7	11.2	11.5	15.5	15.9	17.4
중국	16.7	23.5	15.5	13.7	15.5	16.9

자료 : Trademap

Ⅲ.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한국과 아세안-5는 경제발전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

❍ 아세안-5는 교역 및 투자의 중요한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협력 강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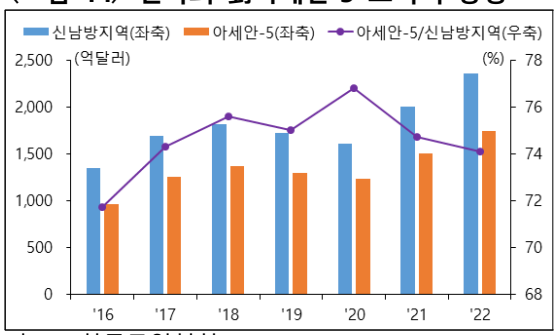
* 신제품과 새로 개발한 콘텐츠·프로그램·서비스 등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제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출시하는 특정 시장이나 지역을 의미하며, 기업들은 테스트 베드에서의 시장 반응을 살펴 성공 여부를 예측

- '22년 한국의 전 세계 교역의 12.3%, 누적 직접투자액('22.9월말)*의 10.6%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 특히, 아세안-5는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전략 등의 연계선상에서 협력 강화 지속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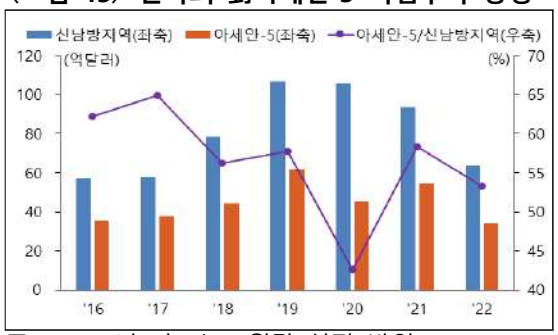
- 아세안-5는 한국의 對신남방지역[5] 교역의 74.1%('22년), 누적 직접투자의 64.6% 차지

〈그림 14〉 한국의 對아세안-5 교역액 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 15〉 한국의 對아세안-5 직접투자 동향



주 : '22년 자료는 9월말 실적 반영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5) 신남방지역은 ASEAN 10국+인도를 의미. ASEAN 10국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한국은 아세안-5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경쟁국의 진출 벤치마킹, 시너지효과 극대화, 한국정부의 효율적인 기업지원 방안 등 모색이 필요**

❍ 한국은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기업들의 對아세안-5 진출 방안 벤치마킹 필요
- 일본으로부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화 및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편입' 전략
- 중국으로부터는 정부의 지원과 개발금융을 이용하여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 전략

❍ 한국과 아세안-5는 양자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협력 강화 추진
- 말레이시아의 경우, 동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인 할랄식품, 자동차, 팜유, 원유·가스, 건설 등 5개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 필요

❍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우리기업의 아세안-5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괄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산업통상부 'FTA지원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지원센터',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

참고문헌

[국문자료]

남경옥(2022), “주요 신흥국의 대내외 건전성 및 취약국 점검”,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2),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국별 각년호

안성배 외(2021), “2021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KIEP, KIEP 오늘의 세계경제

_____(2022), “2023년 세계경제 전망”, KIEP,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코트라(2022), “’21년 아세안-5 경제실적과 수출입 동향”, 지역조사실/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영문자료]

BIS(2000),「Measuring Potential Vulnerabiliti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Working Paper 91

IMF(1999),「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

IMF(2022),「World Bank East Asia and The Pacific Economic Update」

IMF(2022),「FISCAL MONITOR」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2021),「2021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인터넷 자료]

https://www.bloomberg.com

https://www.iif.org

https://www.kita.net

https://www.trademap.org